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출장기간 : 2024. 1. 24.(수) ~ 1. 29.(월)/ 5박 6일

출 장 지 : 대만(가오슝시, 타이베이시)

출 장 자 : 황혜란 수석연구위원, 주혜진 책임연구위원,
변수정 위촉연구원

1. 출장목적

- 대전문화예술 중흥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는 문화예술 환경 분석 및 선진지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발전방안에 반영하는 과업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대만의 가오슝시는 지역의 쇠퇴공간 및 근현대 역사 배경을 지닌 유희공간을 문화예술과 접목하여 지역 활성화한 사례지로 주목받고 있음
- 예술가의 주도로 유희공간 활성화 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얼예술특구와 화산 1914 문화창의산업원구가 있으며, 답사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운영 체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대전의 철도문화를 특화하기 위한 자료조사로 합마성 대만 철도관과 다카오 철도이야기관을 답사하여 지역 특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과학도시로의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한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 사례를 직접 답사하고, 건축적 미학을 반영한 예술 공간 운영 사례를 통해 대전 문화예술 중흥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2. 출장기간 : 2024. 1. 24.(수) ~ 1. 29.(월) / 이동일 포함 5박 6일

3. 출 장 지 : 대만(가오슝시, 타이베이시)

4. 출 장 자 : 황혜란 수석연구위원, 주혜진 책임연구위원, 변수정 위촉연구원

II

출장 일정

월일 (요일)	도시	업무수행내용
1.24 (수)	인천시- 가오슝시 *숙박:가오슝	○ 인천공항 → 가오슝공항 ○ 가오슝공항 → 가오슝시 이동 ○ 가오슝 대중음악센터 견학
1.25 (목)	가오슝시 *숙박:가오슝	○ 보얼예술특구 방문 및 면담 ○ 합마성 대만 철도관 방문 ○ 다카오 철도이야기관 견학
1.26 (금)	가오슝시 *숙박:가오슝	○ 타이완 국립과학공예박물관 견학 ○ 대동 예술 도서관 방문 ○ 대동문화예술중심 방문 및 면담
1.27 (토)	가오슝시- 타이베이시 *숙박:타이베이	○ 가오슝시 → 타이베이시 이동 ○ 화산 1914 문화창의산업원구 방문
1.28 (일)	타이베이시 *숙박:타이베이	○ 국립고궁박물관(중국 예술품 박물관) 방문
1.29 (월)	타이베이시 -김포시	○ 타이베이 송산공항 → 김포공항

※ 당초 예정되었던 웨이우미미촌 벽화마을과 위무영 국가예술문화중심, 가오슝 전람관, 타이베이 시립미술관은 현지 사정에 따라 가오슝 대중음악센터, 미려도역, 대동 예술 도서관으로 대체함

1.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의 유희공간 활용 사례

1) 도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예술생태계 운영 사례 '보얼예술특구'

- 2000년 타이완 국가에서 매년 주최하는 큰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현재 보얼예술특구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서 가오슝 대중음악센터 설립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확충과 더불어 예술가 지원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06년도 이전까지는 시민단체나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나 민간에서의 운영의 한계를 느껴 가오슝시에서 직접적으로 돕기 시작하면서 가오슝시 문화국이라는 조직 신설을 시작으로 보얼예술특구 전반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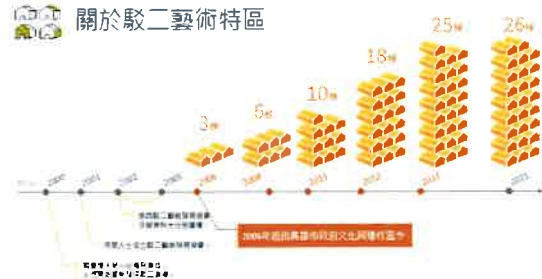
<보얼예술특구 관계자 면담>

- 보얼예술특구는 크게 다용구(최초의 창고), 평라이구(철도 테마), 다이구(문화창조계획 공간)로 분류하여 운영중임
- 민간(개인또는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던 항만창고들을 2006년부터 시정부에서 임대 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현재는 26개의 창고를 예술특구 범주로 활용하고 있음
 - 2000년 축제 개최 이후 보얼예술특구를 알리기 위해 지역예술가 중심의 활동이 전개되면서 지역 유명 관광지로 급부상함

- 2005년부터 운영의 어려움과 한계를 느낀 민간업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가오슝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술특구로 지정하여 근대 미술과 디자인을 주제로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중에 있음



<대만 불꽃축제 개최에 따른 변화>



<년도별 항만창고 활용의 변화 추이>

자료: 보얼예술특구

- 예술가, 비예술가 또는 전문예술가, 아마추어(생활예술인) 구분 없이 사업 운영취지에 맞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가 개인뿐만 아니라 예술적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창업가, 예술 관련 기업들도 지원 대상으로 범주함에 따라 예술시장 조성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함
-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은 8개로 1년에 대략 20~30여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머무르며 대만 중앙정부와 가오슝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예술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예술 사업과 관련된 업계 종사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특정 장르와 자격을 제한하여 지원하는 국내와는 차별점이 존재함



<레지던시 공간 및 예술작품 전시 모습>

- 보얼예술특구의 운영 조직인 가오슝시 문화국의 사무인력은 30여명으로 총 6개 부서(전시, 레지던시, 마케팅, 상인초청운영, 운영관리, 시설보수)로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임



<보얼예술특구 운영(가오슝시 문화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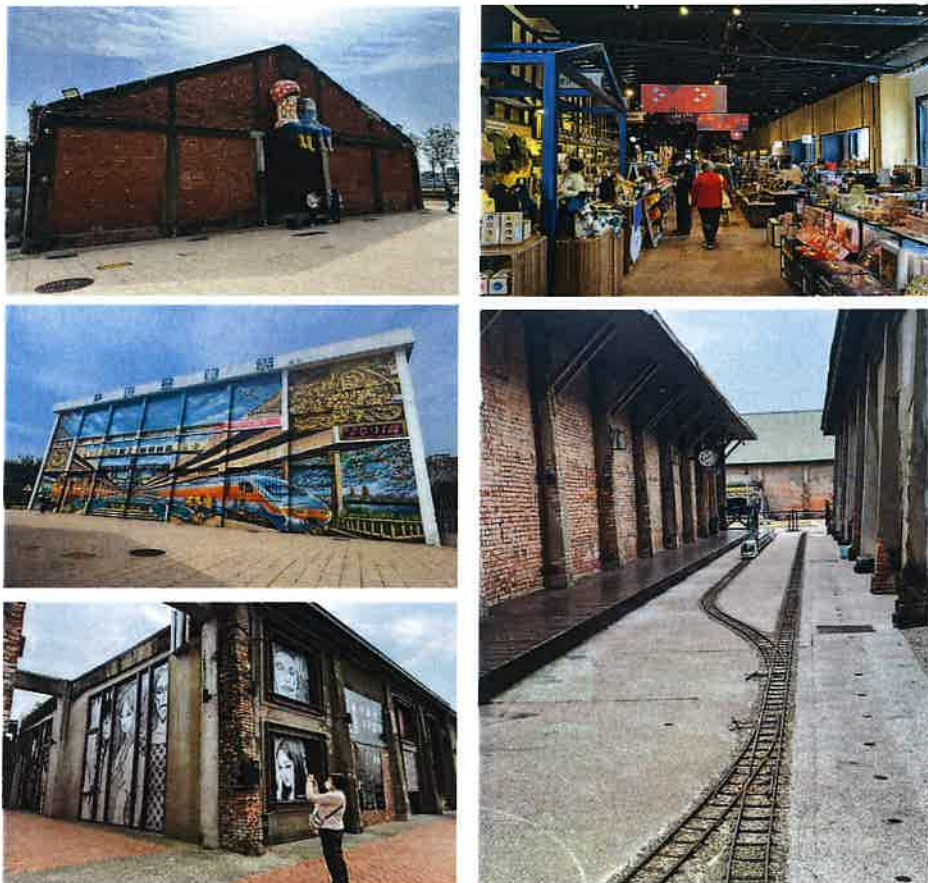
자료: 보얼예술특구

-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회사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임대하고 있고, 시민 무료 개방형으로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예술공간을 운영함에 따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 대전의 근현대 공간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유휴공간을 활용 시 콘텐츠 부분 뿐만 아니라 일상 속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관광객들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설 공간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개방형 오픈 공간>

- 보얼예술특구는 크게 서점, 영화관, 기업 전시 등이 위치한 다용구, 철도문화를 테마로 한 평라이구, 큰 창고를 활용한 전시공간인 다이구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어 공간별 특색을 잘 반영함
- 2013년부터 시작한 창업기업 지원으로 수공예작품 전시 및 판매, 식음료매장 운영,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고, 현재까지 공간지원 및 임대계약 대상기업은 약 80여개로 산정됨
- 가오슝시 정부에서 매년 지원받는 예산은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외에 발생하는 수익금은 공간 임대료로 활용함에 따라 예산 분배의 효율성을 높임



<보얼예술특구 전경>

2) 청년예술가들이 주도하는 유희공간 활성화 사례 '화산1914 문화창의산업원구'

- 화산 1914 문화창의산업원구는 일제강점기 시대인 1914년에 세워진 대만의 가장 큰 양조장으로 근대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양조장 이전 이후 철거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타이베이 시민들과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1999년 타이베이 고적으로 등록, 2007년 도시 대표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재탄생하게 됨
-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아 시민들의 문화여가생활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는 대표 명소로써 지역재생의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함



<화산1914 문화창의산업원구 외관>

- 낡은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되 변화하는 문화예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들로 구성함
- 수제공예품, 이색 소품샵, 과학문화상품, 골목 사진전, 갤러리, 레스토랑, 카페 등 다양한 상점이 입점해 있음



<소품샵 및 과학문화상품>

- 그 외 야외 공간에서는 마임공연, 길거리 버스킹 등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복합문화공간으로의 활용도를 높임



<마임공연 및 길거리 버스킹>

- 영화 또는 OTT플랫폼의 인기 상영작 등을 테마로 하여 놀이시설을 접목한 공간 운영으로 젊은 세대부터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까지 다양한 방문층이 즐겨찾고 있음



<영화 접목 놀이공간>

- 다양한 이색적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기는 하나 화산1914 문화창의사업원구 공간을 대표해서 보여줄 수 있는 킬러콘텐츠가 부재한 것이 아쉬움
- 대전의 근대공간 또는 비어진 낡은 유휴공간을 전시공간의 정적인 공간 활용보다는 젊은 예술가들의 예술적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공간을 직접 주도하여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고민이 필요해 보임
- 또한 단순히 관람하고 돌아가는 공간이 아닌 종일 머무를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상가와의 연계방안, 공간 내 편의시설 입점, 이색 예술상품 전시 및 판매, 놀이적 요소를 가미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 철도문화자원의 특성화 사례

1) 역사자원을 도시 특화한 사례 '합마성 대만 철도관'

- 대전의 철도문화를 활용한 발전방안 수립을 고민하기 위해 합마성 대만 철도관을 방문함
- 합마성(하마싱)은 일제강점기 시 가오슝 항구의 화물을 실어나르던 철도의 지선으로 2016년 역사속으로 사라진 합마성 노선과 창고를 복원하여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시민 공원으로 재구성함



<합마성 대만 철도관 전경과 굿즈샵 >

- 과거 당시 사용되었던 차량 및 기차와 관련된 굿즈를 판매하는 박물관 성격의 합마성 대만 철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니 모형을 통해 철도가 운영되었던 모습을 재현하고 있음



<합마성 대만 철도관 전시 공간>

- 특히 직접 열차를 타보는 듯한 공간 연출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야외에는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미니기차를 운영함에 따라 실내·외 공간 모두 통일감있게 구성한 것이 특색임



<합마성 대만 철도관 내외부 열차재현 공간>

- 지역예술가 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예술가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각국의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적 고념을 엿볼 수 있으며, 철도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광활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 대형 이벤트의 효율적 운영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합마성 대만 철도관 야외 예술가 작품 전시>

- 합마성 대만 철도관 방문을 통해 철도문화를 지역의 대표콘텐츠로서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 사례로 확인함
- 대전은 근대도시로서 철도의 역사와 문화가 깊이 자리하고 있지만 이를 문화적으로 풀어낸 사례는 극히 적기 때문에, 철도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 운영과 이를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함

2) 연계공간으로서의 지역 상승효과 사례 '다카오 철도이야기관'

- 대만 전역으로 이동하던 다카오역을 철도 역사를 보여주는 전문박물관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다카오 철도이야기관 전경과 내부>

- 공간 자체의 규모는 매우 작지만 과거 실제의 역 내 공간을 직접 관람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적용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 알려짐



<다카오 철도이야기관 전시 공간>

-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관람에 대한 안내를 문의받을 수 있으며, 야외에는 오래된 기차들을 전시하고 있음
- 관람 이외에 체험이나 기념품 판매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고있지는 않기 때문에 철도 역사를 위한 메인공간으로의 역할보다는 연계공간으로의 보조적 기능을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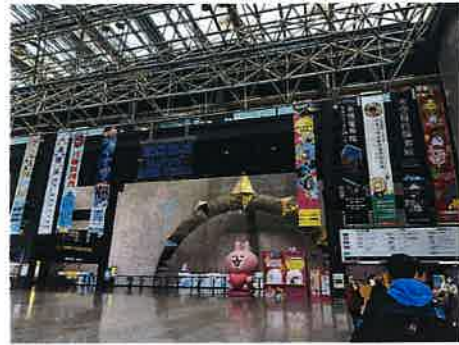
<다카오 철도 이야기관 야외 기차 전시>

- 대전역 인근에 철도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공간 운영을 함에 따라 철도문화지구로서 지역성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3. 문화예술 융복합 특화 사례

1) 문화예술과 과학의 융복합 선진 사례 '타이완 국립과학공예박물관'

- 문화예술과 과학의 융복합 선진 사례로 타이완 국립과학공예박물관을 방문하였으며, 관계자 안내에 따라 공간별 이해를 도움
- 국립과학공예박물관은 가오슝 산업문화발전에 맞추어 설립된 곳으로 대만의 첫 응용 과학박물관이자 국립사회교육기구로 아시아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큰 박물관임.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물을 수집하여 연구하며, 교육 및 전시를 통한 학습의 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함



<타이완 국립과학공예박물관 전경과 내부>

- 전체 박물관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로 북관과 남관으로 나뉘져 있으며,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도 잘 구비되어 있음



<타이완 국립과학공예박물관 내부 굿즈샵과 놀이 공간>

-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타이완 공업 사적관, 우주 비행 탐색관, 과학 교실, 수자원 교실 및 생물과학기술 교실, 건강 탐색관, 교통 드림관, 아동 과학원 등이 위치함

- 특별전시 홀을 운영하여 유료티켓 구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연계된 공간으로 3D체험실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전시, 체험, 교육의 다기능을 반영함



<타이완 국립과학공예박물관 산업역사 전시관>

- 대만의 생활과 관련된 응용과학 전시물을 의복 및 방직 기술 전시관, 기술 지식에 관한 새로운 시각, 텔레콤@타이완, 요리하는 과학 등 의식주와 관련된 역사문물을 체계적으로 전시함



<타이완 국립과학공예박물관 응용과학/ 커뮤니케이션 전시관>

- 대전은 국내에서 과학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이와 더불어 예술과 접목한 과학문화 활성화 사업이 전개되고 있음. 대전의 대표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과 문화예술을 융복합한 사업으로는 대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아티언스 대전 등이 있으나, 특정 예술장르가 아닌 다양한 장르를 활용한 이색 응용사례를 발굴, 특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예술 중심 전문도서관 사례 '대동 예술 도서관'

- 대만 가오슝시에 위치한 대동 예술 도서관의 전체 공간 구성은 일반 도서관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예술 장르별 도서를 구분하고 있다는 특이점을 갖추고 있음



<대동 예술 도서관 전경과 내부>

- 1층 로비는 안내센터와 지역의 문화행사 및 도서를 전시하고 있으며, 2층은 컴퓨터 작업 공간과 오디오 및 영상을 활용한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음



<대동 예술 도서관 공간 구성 >

- 3층은 예술 특화 공간으로 구성하여 페인팅, 조각·조소, 캘리그래피, 음악, 문화아트, 중국 폴리오 서적, 금속공예 등의 전문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됨



<대동 예술 도서관 내부 공간>

- 국내에서는 2014년 대구에 위치한 미술전문도서관인 아트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 문화예술 또는 아트 중심의 전문도서관은 부재함. 대부분 지역의 대표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서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전의 문화예술의 현황과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과 아울러 장르별 예술 도서를 전문적으로 접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으로 우위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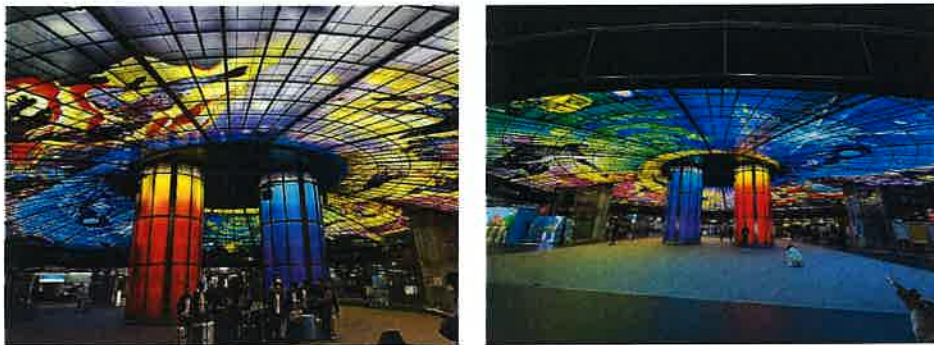
3) 일상 속 관광명소로 랜드마크화 한 사례 '미려도역(미디어파사드)'

- 가오슝시에 위치한 미려도역은 미국 여행 웹사이트 'BootsnAll'에 의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지하철로 선정되어 각국의 관광객들의 방문성지로 알려지게 됨



<미려도역>

- 지하의 어두운 공간을 영상과 조명, 미디어파사드를 접목하여 매일 두 번의 상영으로 지역 명소로써 랜드마크화 한 사례임



<미려도역 미디어파사드>

- 주기적으로 영상의 테마를 달리하여 상영하고 있고, 주변 공간은 조명을 활용하여 특색있게 구성하고 있음
- 일상 공간을 차별화한 특이점이 있으나 영상의 패턴이 단조롭고 재방문할 정도의 매력성은 조금 미흡하였음
- 대전의 으능정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스카이로드를 이색적으로 특화하는 방안 또는 근현대 건물(옛 충남도청, 헤레디움 등)과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야경경관 연출 등의 차별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4. 건축적 미학을 반영한 예술 공간 운영 사례

1) 자연과 예술적 건축미학의 융합 사례 '가오슝 대중음악센터'

- 대중음악을 주제로 한 공간인 가오슝 대중음악센터는 항구에 위치하고 있어 고래, 파도, 산호 등 바다를 테마로 설계함에 따라 자연과 예술적 건축미학이 잘 융합된 사례임
- 보얼예술특구와의 연계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가오슝시의 랜드마크로써 지역의 예술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뮤지션들이 찾고 있는 명소임



<가오슝 대중음악센터>

- 6000석의 대형 실내 공연장과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비롯하여 총 6개의 전시 공간으로 구성됨
- 문화공간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단법인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행정법인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이점으로 볼 수 있음
- 대중음악을 테마로 해양문화의 요소를 융합하여 새로운 음악 트렌드를 선보이는 공간운영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다기능 예술의전당 사례 '대동문화예술중심'

- 공간의 건축적 미학과 예술 중심의 전문 공간 운영으로 다기능 예술의 전당인 대동문화예술중심을 방문함



<대동문화예술중심 전경>

- 습지공원과 인접하고 있어 자연의 하늘빛과 공기를 시각적으로 표현된 야외 외관은 낮에는 시민들의 쉼터로의 역할을 하고 밤에는 미디어영상을 접목한 야경 볼거리로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 따라 공간이 가지는 미학을 특색있게 잘 갖추고 있음
- 문화예술공연을 위한 음악공연장과 전시갤러리, 봉산역사전시관 그리고 카페와 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음. 봉산역사교실,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일별 운영하고 있음



<대동문화예술중심 교육프로그램>

-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 이외에도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은 규모이지만 청나라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가오슝의 역사

와 음식 문화, 특산물 등을 상설전시하고 있음



<대동문화예술중심 봉산역사전시관>

- 특정 예술 장르를 위한 공간 운영이 아닌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니즈를 반영한 열린 공간으로서 복합적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건축적 미학과 함께 미디어영상을 접목한 야관 경관은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돋보이는데 중요한 점으로 적용되고 있음



<대동문화예술중심 야외 공간>

3) 역사와 현대를 잇는 예술 전시 사례 '국립고궁박물관'

- 5,000년의 중국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70만점에 달하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어 세계 4대박물관으로 손꼽히는 국립고궁박물관을 답사함



<국립고궁박물관 전경과 내부 전시>

- 메인홀인 제1전시장과 구 도서관 및 문학관인 제2전시실로 크게 나뉘며, 현재 전시되고 있는 전시회만 18여개에 달하는 대형 규모의 박물관임
 - 서예·회화, 옥·구리 제품, 도자기, 보물, 책과 문서, 디지털뉴미디어, 세라믹, 청동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전시실을 운영함에 따라 관람객의 문화적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있음
 - 시기별로 변동되는 기획 전시와 보물품 등의 상설 전시 공간으로 구분됨



<국립고궁박물관 공간 구성과 내부 전시>

-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나라별 가이드투어가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전시를 즐길 수 있다는 강점이 있음

-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수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기간별로 한정하여 전시를 하고 있어 재방문율이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국립고궁박물관 전시 기간 한정>

- 국내의 국립중앙박물관 또한 문화복합공간으로서 문화예술, 전시, 공연 및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음에 따라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음. 박물관의 단순한 전시 기능을 앞서 동적인 요소를 가미한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의 다기능 역할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예술공간의 직접 조사를 통해 운영체계 및 문화 정책 도출
 - 5개구 지역구별 문화자원과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특화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대전이 가지는 철도문화, 과학문화, 근현대역사(건축물 포함)자원 등을 대표 문화도시로 지향하기 위해 예술인 주도의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
- 예술인 및 예술시장 지원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대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구축할 필요성을 인식함
- 대전의 문화자원 및 근현대 역사자원을 활용한 중장기 전략 도출로 문화도시대전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